

元老科學者の鼎談

科總 創立 第15周年을 맞이하여 會史編纂을 위한 元老科學技術者の 座談會가 지난달 28일 있었다. 15個 星霜을 맞이한 科總의 오늘이 있기까지는 지난날의 역정이 점철되고 있음은 말할 나위 없는것.

초창기부터 참여해온 元老들을 모시고 이제까지의 맥락을 짚어보며 앞날의 期待를 가름할 뿐만아니라 앞으로의 方向指標를 導出할 수 있다는 點에 서도 意味가 있을 것으로 본다. 다음글은 元老들의 鼎談내용이다.

日 時 : 1981年 8月 28日(金) 下午 2時

場 所 : 科總會議室

參席者 : 金 東 一(會史編纂委員長)
李 鳳 寅(前 大韓技術總協會長)
姜 琮 武(前 大韓技術總協會長)
金 瑢 會(前 大韓技術總協會 副會長)
李 在 晚(前 科總 명예 회장)
羅 世 振(會史編纂委員)

初創期는 期待에 어긋나 80年代 前後하여 面貌갖춰

金 東 一 ; 날씨가 무더운데 이렇게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선배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科總이 오는 9月24日로 創立 15周年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 기념사업으로 會史를 發刊하기 위해 원고를 작성중에 있으나 科總創立以後의 자료는 대충 있지만 前史部分의 기록이 未備하니 과거 여러분들이 참여했던 기억을 되살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인 確定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자료를 검토하신 후에라도 연락하여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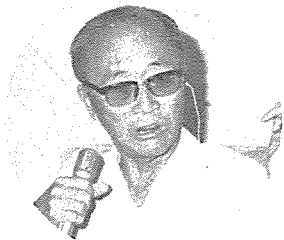
金 東 一 博士

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科總 前身の 하나인 大韓技術總協會의 母體라고 할 수 있는 朝鮮工業技術聯盟의 이야기부터 하도록 하죠.

大韓土木學會略史를 보면 1945년 8월 17일 서울鍾路기독교서원에서 發足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大韓機械學會略史에 의하면 처음 全國工業技術聯盟으로 發足하여 후에 朝鮮工業技術聯盟으로 개칭된 점으로 미루어 해방후 바로 發足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李 鳳 寅 ; 金海琳씨가 자세한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李 鳳 寅 先生

金 東 一 ; 金海琳씨는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자세히 이야기해 봤습니다.

金 瑢 會 ; 科學技術界의 元老이신 金東一 박사께서 科總 15年史를 발간하기 위해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보관하고 있는것중 1965년도에 나온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1951년부터 1965년까지의 연혁, 歷代會長이 기록되어 있으니 참고가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이 資料를 보면 1953년부터 1958년까지 全國產業技術者大會를 4회나 개최하였으며 政府에 建設部설치도 건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때 나도 건설부설치를 열심히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科學技術界에 몸을 담았던 사람이 長官이 되면 그 분야의 일을 대변해주고 또 많은 활약도 기대했었지만 막상 되고나니 기대에 어그러지더



金 瑢 會 先生

군요.

金 東 一 ; 羅박사께서는 科總의 母體중 하나였던 韓國科學技術振興協會 창설 당시에 人事理事會長으로 계시면서 혼신의 힘을 쏟으신 걸로 알고있는데 當時의 實情은 어떠했는지요.

羅 世 振 ; 8·15解放以後 뒤떨어진 祖國의 科學技術振興을 위한 國內 科學技術者들의 의욕은 대단했었습니다. 이에 比해 歷代政府의 科學技術에 대한 施策과 投資는 너무나 빈약했기 때문에 우리를 失望케 했고 아울러 國內科學技術界는 침체일로로 걸게 되었습니다. 그같은 상황에 대한 反動的 現象이있었는지는 몰라도 강력한 압력단체로서의 韓國科學技術振興協會의 창설은 당시 國內科學技術者들의 기대감을 상대적으로 크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創立된지 1년도 못되어 5·16 軍事革命이 일어났고 자연히 여러가지 制約으로 因해 뚜렷한 成果를 거두지는 못하였으나 그 趣旨와 조직이 그대로 科總에 이어져 現在의 科總이 사실상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민간활동의 總本山으로서 맡은바 역할을 원활하게 추진시키게 된 것을 지극히 다행스런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 東 一 ; 姜琮武선생께서 會長在任時 大韓技術總協會 會館建立을 추진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좀 해 주시죠.

姜 琮 武 ; 元容奭씨가 경제기획원장관으로 계실때 여러번 찾아가서 建議를 하였으나 별 成

果가 없었습니다. 또 그때의 技術總協會는 軍政時代라서 이름만 總協會지 이렇다할 活動도 없었으며 총회를 소집해도 성원이 되지 않는 형편이라 총회도 못하고 金允基씨에게 會長職을 인계 하였습니다.

金 瑢 會 ; 李鳳寅선생이 회장시에는 大韓土木學會건물을 사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李 鳳 寅 ; 土木學會건물을 같이 사용했지요.

姜 琮 武 ; 6·25 동란으로 최난시절에는 創立總會를 釜山市廳에서, 그리고 경기도청에서도 총회를 한 것으로 기억하는 데요.



姜 琮 武 先生

金 東 一 ; 6·25 피난시절 李康賢씨가 會長을 맡고 있을때 李承晚대통령을 만나서 기술총협회 活用을 건의한 적도 있으나 전쟁상태라서 그런지 별 反應을 얻지 못했습니다.

科學技術振興法에 대해 이야기 좀 합시다.

李 在 晚 ; 解放直後부터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헌신하신 선배님들의 勞苦에 느낀 바가 많습니다. 저는 5·16혁명직후 國家再建最高會議 財經首席諮問委員으로 있을때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을 위해서는 무언가 법을 만들어야 겠다고 생각한 끝에 먼저 技術士法을 만들도록 힘을 쏟았습니다. 또 그것만 갖고서는 만족치않아 과학기술진흥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國會에 진출해야 겠다고 判斷, 국회에 나가 科學技術振興法과 科學技術教育振興法을 내 요청에 따라 상정했고 결국 통과되었습니다. 國會史에도 나와 있지

만 科學技術振興法은 내 개인이 發議한 立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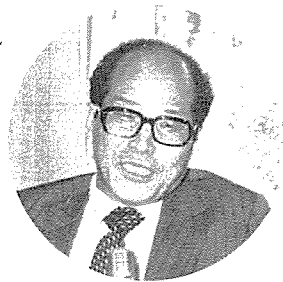
金 東 一 ; 그때 科總이 創立되어 政府에 건의서를 내고 李在晚씨가 주동이 되어 활약을 했지만 橫의인 연결은 없었어도 당시 經濟科學審議委員이었던 崔奎南, 朱耀翰선생등도 立法을 위해 꾀 애를 썼었습니다.

科總創立後 李在晚의원(당시)과 함께 故朴正熙 대통령에게 회관을 지어달라고 찾아간 적이 있지요.

李 在 晚 ; 예 그때 安東赫, 尹日善, 崔奎南, 趙伯顯, 金允基, 金東一선배님들과 대통령을 찾아가서 회관을 이야기 했더니 회현동에 있는 陸軍조달관실건물을 쓰도록 지시하였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보니 잠상인들이 너무 많고 건물도 바로 철거해야 되는 여건인것 같아 쓰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도 무효로된 셈이지요.

科總은 그동안 각종 科學技術振興施策研究事業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당면한 과학기술진흥시책을 연구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여 對政府建議의 관계당국 및 과학기술계에 반영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國家研究課題導出事業과 科學技術政策, 防災科學, 國民住宅問題등의 연구 발표회를 통해 과학기술계가 안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과 발전책을 제시하고 이를 정부당국과 관



李 在 晚 先生

계요로에 건의하여 하나씩 해결하는등 그야말로 과학기술계의 총본산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더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진흥, 육성을 위해 과학기술정책에서부터 수행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계의 意見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었으면 합니다.

金 東 一 ; 1966년 創設以後 科總은 예산 부족등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과학기술진흥·육



羅 世 振 博 士

성을 위한 많은 사업들을 수행해왔습니다. 특히 1978년 閱寬植박사가 제5대회장으로 취임하면서 事務處의 機能을 정비, 강화하여 活性化시키므로써 科總만이 수행할 수 있는 獨自의인 사업 개발에 역점을 두어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하여 장족의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금년에는 학회 학술활동보조금으로 1억6천만 원을 확보하여 123개 학회의 학술활동을 지원하 는 한편, 국내의 한국과학기술자총합 학술대회도 汎世界大會로 확대 개최할 계획으로 있지요.

또한 國民生活 科學化運動을 주도하고 과학화 모범사례 발표회와 새마을기술봉사단 활동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韓國科學技術 30年 史”를 편찬했으며 “科學技術用語集”을 발간하 는 한편 “과학기술용어사전” 및 “과학기술인명 사전” 편찬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회원상호간의 관심사와 문제점을 찾 아 개선책을 모색하는등 과학기술단체의 유기적 인 결합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어요.

이렇듯 과총이 과학기술계의 총본산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었던 것은 다 元老여러분 과 회원여러분이 협조하여주신 성과라고 봐야겠 지요.

오늘의 과총이 있기까지는 원로와 회원들의 숨은 노고가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科總은 이 제 元老들이 마련한 토대위에서 각종 사업 들을 하나하나 착실히 추진해 나가므로써 과학기술계 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리라 고 봅니다.

앞으로도 科總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원로선배 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장 시간동안 좋은 말씀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깨끗한 國民

깨끗한 社會

깨끗한 政府